

타잔에게 훌륭한 멘토가 있었다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에게 자신과 기업의 숨은 능력을 발견해 주고 인정하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는 정신적 스승과 조언자가 필요하다. 사업의 초기엔 대부분 한 두 명씩 멘토들이 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단계 위에 오르면 더 이상 멘토를 만나기 어렵게 된다.

야만의 정글세계에 살고 있는 타잔에게도 훌륭한 멘토가 두 명 있었다.

고릴라 엄마 칼라와 타잔의 부인이 된 제인이다. 타잔이 약육강식의 살벌한 정글과 우악스럽고 힘센 고릴라 틈바구니에서 성장하고 고릴라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릴라 엄마 칼라의 도움이 컸다.

칼라는 고릴라 흉내를 내며 흠을 몸에 바르다가 무리와 다른 자신을 한탄하는 타잔에게 “고릴라 흉내를 내지 마렴. 너는 너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라며, 타잔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꿈에 대해 자각하게 해준다.

그러자, 타잔은 고릴라 흉내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독특한 정글 메아리 “아 아아~”를 연습하고, “나는 고릴라 대장이 될 꺼야”라며 자신의 꿈을 만들어 간다. 고릴라보다 빨리 밧줄을 타고, 싸움도 잘 하게 되며, 정글 신무기인 돌창도 만들게 된다.

드디어, 타잔은 고릴라 대장이 된다. 그러다가 문명세계에서 온 제인을 통해 문명세계의 지식과 말을 배운다. 타잔 스스로가 고릴라가 아니라 제인과 같은 인간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사냥꾼으로부터 침입에 대하여 싸우며, 정글을 지키게 되어 타잔은 고릴라를 보호하는 고릴라 대장에서 정글을 지키는 정글 수호신으로 거듭나게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른 사람과 다른 기업을 흉내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수익모델을 찾기보다, 자신만의 목소리와 기업만의 독특한 사업모델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비전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흉내와 모방을 통해서 잠시 웃기거나 반짝 수익을 올릴 순 있어도, 그 사람과 제품을 뛰어 넘기 힘들다.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타잔이 정글메아리와 밧줄타기를 연마하듯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체성이 있는 사업모델과 확실한 꿈이 있는 기업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그 위기를 돌파하고, 성공의 문턱을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다. 위기가 찾아오면 고릴라 엄마 칼라처럼 훌륭한 멘토를 찾아 조언을 들으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전혀 다른 기업과 환경 사람들에게 조언 받아 새로운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시장환경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인터넷을 통해 총알처럼 빠르게 전달되고 영향을 받는다. 이런 스피드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기업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과 흐름을 장악하게 된다.

훌륭한 사람이나 성공하는 기업에게 훌륭한 멘토가 주위에 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선배든, 스승이든, 직원이든, 책 속의 인물이든 우리가 밝은 눈으로 찾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훌륭한 멘토의 말 몇마디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과 기업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준다. 사실,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도 어렵거나 지치고 힘이 들 때 위로와 함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의 정체성과 꿈에 대한 희망과 지원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멘토다. 타잔에게 고릴라와 제인이 있듯이 벤처기업에게도 멘토가 필요하다.

“치렀습니까? 힘 내세요. 당신은 벤처인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KOVA**

강대진 _ 한겨레리빙, 조이닷컴, 웹나라에 근무했으며 (주)커머스에이전트를 창업했다. 마케팅, 영업, 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웹나라 재직시절 타진경영을 창안해 참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21세기 경영법을 총망라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현재는 e랜서로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글쓰기, 강의, 신사업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글 CEO>가 있다.